



## 말씀

## 하느님 나라를 위한 준비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서 복음을 선포하신 말이며, 예수님께서서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제가 오는 것을 긴장하고 있습니까? 입대? 전역? 개학? 시험? 면접? 시험결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기다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기다리는 순간이 긴장이 되어서 그렇지만 지나고 나면 후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다가오는데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순간까지도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 순간이 지나도 걱정만 가득할 것입니다. 어떤 순간이 다가온다는 것은 그 순간을 위해서 준비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십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가르쳐주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하는 것 중 제일 중요한 것이 하늘나라가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휴가를 기다리기보다, 방학을 기다리기보다, 월급날을 기다리기보다, 휴일을 기다리기보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기다려야합니다. 이 기다

림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학기가 끝나고 방학을 하는 아이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방학계획을 세웁니다. 월급과 휴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학을, 월급과 휴가를 아무 의미 없이 소모하게 됩니다.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늘나라를 위한 준비는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내 모습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충분한지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잘 하고 있는 것은 더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그 날은 모르지만 분명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깨달은 그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회개는 말만이 아니라 마음과 실천에서 드러납니다. 힘들더라도 꼭 해내시길 바랍니다.



상영신(보니피시오) 신부  
동해(해군 1함대) 성당 주임

- 제 1 특 시      요나 3,1-5.10
- 회    답    송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소서.
- 제 2 특 시      1코린 7,29-31
- 복음    반    호    송      ◎ 알렐루야  
                                  ○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
- 복            음      마르 1,14-20
- 영    성    제    송      주님께 나아가면 빛을 받으리라.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 진리를 살다

가톨릭신자는 미사에서 자신의 평범한 일상 생활로 나아가기 전에 다시 한 번 하느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축복은 주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서 실천해야 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위한 하느님의 도움에 대한 명확하고 진실한 소망입니다. 이에 개정된 미사 경본은 여러 가지 축제와 시기에 따라 다양한 장엄 강복과 축복 기도를 베풀 수 있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대개 세 단계로 나누어 구성된 장엄 강복의 기도 양식은 신앙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실현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결심과 의도뿐 아니라 하느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하느님의 축복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옛 격언의 진리가 이 축복에 명확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계산으로 측정하거나 조종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연을 변질시킵니다. 자연의 변화는 전적으로 하느님의 도우심과 손길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의 변화를 통한 번영과 들판의 풍성한 결실과 열매입니다. 축복은 항상 십자가의 표시를 동반합니다. 사제는 미사에 참여한 신자들 위에 십자가를 크게 긋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구원을 기대할 것이며 또 그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 무엇

# 미침예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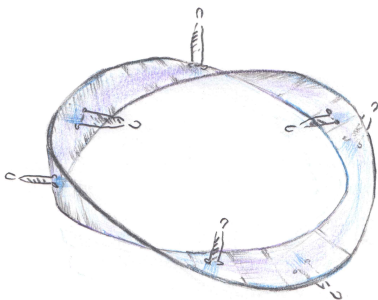
인지를 다시 한 번 상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희생을 생생하게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이름은 신자들 위에 그은 십자가의 표시로부터 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표지입니다.

## 파견과 퇴장

강복을 한 다음 사제나 부제는 공식적으로 폐회 선언을 하면서 신자들을 파견합니다. 현행 「미사 경본」에는 다섯 가지의 다양한 파견사가 제시되어 있는데,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가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시다.”,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주님을 찬미합시다.”하고 말합니다. 그 외에도 사제는 그날 미사나 환경에 따라 다른 파견사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아 이것은 4세기까지 소급되는 것이며 파견 선포로 사용되었던 옛날의 여러 전례와 비슷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활동을 통한 하느님과의 평화는 성찬례에서 오는 구원의 열매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평화, 그리고 사람들과의 평화는 하느님과의 화해에서 오는 아주 자연적인 결과입니다.

최창덕 F.히비에르 / 대구교리신학원 원장  
『대구대교구 ‘빛’ 잡지 발췌』

# 복 음 묵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 모비우스의 띠 위에서

몰라서가 아니야,  
어쩌다 보니  
이 끝없는 게임에  
빠지고만 가야.

어쩌하면,  
이 끝나지 않는  
게임에서  
나 갈 수 있을까  
잘 못 걸려도  
단단히 잘못 되었어.

상화이야기

성모지와 천사들



보티첼리(1445-1510)

1478년경 작

패널 위 템페라화, 지름 135cm

베를린 국립미술관, 독일 베를린

보티첼리는 성숙한 시기에는 피렌체를 강타한 사보나롤라의 금욕주의 가르침에 빠져, 깊은 신앙심과 애잔한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차분한 그림들을 그렸다. 위 그림에 대한 영국 작가의 탁월한 문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오늘 지금 우리가 성당에 나와 그분 앞에 있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느님의 부르심이다.

독일 신학자 파울 틸리히는 회고록에서 응석받이로 걱정 하나 없던 젊은 시절에는 부모와 교사들이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해주어도 늘 냉랭한 마음으로 예술을 대했다고 말한다. 그러다가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군대에 끌려갔다가 휴가를 받아 나왔을 때(그가 속한 대대원 가운데 4분의 3이 이 전쟁에서 죽었다). 폭풍우가 부는 날, 발길 닿는 대로 걷다가 베를린의 카이저 프리드리히 미술관에 들어가게 되었다.

틸리히는 위층 작은 전시실에서 우연히 산드로 보티첼리의 <노래하는 여덟 천사와 함께 있는 성모 마리아와 아들>을 보게 되었다. 그는 동정녀 마리아의 지혜롭고 연약하고, 동정 어린 눈길과 만나는 순간 견잡을 수 없이 흐느꼈다. 그 자신도 깜짝 놀랐다. 틸리히는 스스로 '계시적 환희'의 순간이라고 묘사하는 것을 경험했다. 그림의 말할 수 없는 분위기와 그가 참호에서 배운 잔혹한 교훈 사이의 불일치 때문에 눈물이 솟았다.

많은 아름다운 것들은 고통과 대화할 때 그 가치가 드러난다. 결국, 슬픔을 아는 것이 건축을 감상하는 특별한 선행조건이 되는 것이다. 다른 조건들은 옆으로 밀어놓더라도, 우선 약간은 슬퍼야 건물들이 제대로 우리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것이다. 「알랭 드 보통 - 행복의 건축」

김은혜(밸리사잇)

교 구 소 식

군중주회 회원들을 위한 미사 - 연중 제3주일: 예성대 이상민 신부

◆ 교구장 동정

-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미사  
 때: 1월 21일(주일) 11:00  
 곳: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 제11회 청소년 진례봉사지 거울 캠프

때: 1월 24일(수) - 26일(금)  
 곳: 지산 포레스트 리조트

“군 복음회, 변함없는 열정으로” - “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